

November 2013

제49호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소식

CHUNGNAM PROVINCIAL COUNCIL

본회의 의정활동
2012행정사무감사활동
사진으로보는 의정활동
도정질문
5분발언
주요처리 안건
문화소식 | 지역축제



새해에 꿈꾸는 사랑

이 채

생각의 잎을 키워
바람 불고 비 내려도
한 그루 지혜로 곳곳이 서 있는
당신의 언덕, 희망의 나무로 살고 싶어라

마음의 꽃을 피워
외롭고 쓸쓸한 날, 때로는 추운 날
당신의 뜰에 나부끼는
영혼의 향기, 천상의 꽃으로 피고 싶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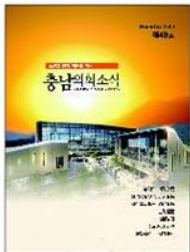
믿음의 뿌리로
날마다 물을 내리는
나무여, 꽃이여
축복의 빛이 당신의 햇살로 비출 때

멈추지 않는 기도로
넘치지 않는 소망으로
사랑의 낙원을 꿈꾸는
구름 같은 자유, 천국의 새로 날고 싶어라

신비의 당신 품에서
꿈결 같은 사랑을 노래하리라
사막의 눈물을 씻고
오아시스의 별빛으로 잠들고 싶어라



Contents



Cover Story

세계와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충남시대를 열어가길
내포 신도시

도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소식

CHUNGNAM PROVINCIAL COUNCIL

04 신년사

06 본회의 의정활동

08 2012 행정사무감사 활동

23 사전으로 본 의정활동

36 도정질문 / 답변

43 5분 발언

48 주요처리 안전

50 2013 의회운영 계획

50 의회운영 마무리

50 기자칼럼

52 문화소식 / Book & Movie

54 지역축제

발행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편집 총무담당관실

전화 042)606-5109 | 팩스 042)606-5049

주소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287번지)

인쇄 한국칼라. 042)226-1155



신년사

**‘깨어있는 의정’을 실천하여
의회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과 도청사 내포신도시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癸巳年』 새해는 우리 충남도청사가 역사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충남시대를 활짝 열고 일류충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차게 출발하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인본의정’, 도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절약하고 아끼는 ‘경영의정’, 지역현장과 소통하며 답을 찾는 ‘깨어있는 의정’을 실천하여 의회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안과 FTA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업 등에 대한 피해 보전 등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해안 유류사고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와 피해보





상 및 배상의 지원을 위해 각종 피해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거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 내포시가 세계적 명품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도민의 사랑을 받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청남도의회의장 이 준 우

본회의 의정활동

제258회 본회의 활동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11월 9일 ~ 12월 14일까지 제258회 정례회를 열고

- ▲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
- ▲ 서해안 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 ▲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 ▲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 개정안
- ▲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 ▲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11. 9일 제258회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준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세세한 현장까지 낱알이 파헤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덕빈 부의장(제2차 본회의)

송덕빈 부의장은 11. 26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회의를 진행하였다.



김기영 부의장(제3차 본회의)

김기영 부의장은 11. 27일 제258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2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장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5개의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 충남도의 모습과 행정운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충남발전연구원, 공주시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유병돈 위원장(부여)은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추궁했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은 충남도가 2010년부터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사업에 공주시 지원은 무엇인지와 공주에서 2009년 시작한 도농복합형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지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 시군 재정조기집행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와 인건비 일시상승 등 부작용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집행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주 탄천 지방산업단지 분양율이 37%로 저조한데 산업단지 분양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11. 19일 기획관리실과 충남발전연구원 행감에서

김용필(예산)의원은 과학기술산업 육성이 중요함에도 도 과학기술분야 예산투자가 저조한 원인과, 도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서도 농업소득과 유통개선분야 투자필요성이 제1순위로 나왔음에도 실제 이 분야의 도 예산투자 비중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

강철민(태안)의원은 최근 3년간 도 소송결과 패소로 인한 배상금액이 2억3천7백만원이나 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홍장(당진)의원은 제 1기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 사업중 구 대천역문화관광지구 사업은 9월말 기준 예산집행율이 14.2%, 부여군 서동요 역사관광지는 21.8%, 서천군 관광열차 운행사업은 12.3%, 청양군 장곡지구 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은 12.2%로 저조한데 사업추진 지연 사유와 대책, 그리고 균형발전사업 추진성과는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11. 21일 자치행정국 행감에서는

김정숙 의원(비례)은 “도의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이 2010년 14억원, 2011년 53억, 2012년 9월말 현재 36억원 등 1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감소 대책과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등 각종 사회단체회원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감하게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 관용차량의 경우 2010년에서 2012년 2년 동안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차량이 4대나 되는데 운행을 하지 않은 사유와 운행실적이 없는 가축위생연구소 구제역 방제를 위한 캠퍼카의 경우 평소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체험기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 11.12 공주시 행정사무감사



천안의료원을 시작으로 홍성의료원 등 지역의료원과 청소년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지난 10월, 환자에 대한 간호사들의 수술거부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와 관련 직원 조치내역을 묻고 203만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추궁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미숙 부위원장(천안)은 재활의학과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지급내역, 새로운 과 신설시 직원의견 등 절차에 대하여 묻고 과를 신설함으로써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했다.

김장옥 의원(천안)은 신축이전 후에 환자진료수가 감소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고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4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시 의료원별로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를 했는데 의료원 정상화는 복지보건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복지보건국 차원의 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도규 의원(서산)은 천안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 민간 종합병원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절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원 위치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 당부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천안의료원 신축공사 설계변경 사유와 악성 미수금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신축이전 전에는 병상가동률이 93%로 높았는데 신축이전 후에는 병상가동률이 78%로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가 묻고 정상적으로 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중 의원(금산)은 의료원 약품구입 관련 리베이트 사실여부를 묻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계약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윤석우 의원(공주)은 도 생활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도지사를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민간주도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한 행태라고 집중 꼬집었다.



▲ 11. 12 천안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수산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산물 원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13일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벼 대체작물용 두류, 조사료 및 식용맥류 등 생산 보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씨감자 종자연구에 대하여 제주도의 생명공학기술을 도입하는 문제와 삼광벼가 밥맛이 가장 좋음에도 키다리병에 대한 문제와 높은 가격이라는 문제점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고남중 의원(예산)은 3농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씨감자가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종자인만큼 3농혁신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염수소독과 열탕소독의 장단점에 대해 묻고 최상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경제통상실과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득웅 의원(천안)은 “경제통상실에서 정책사업에 대하여 충발연에 용역한 결과물에 대하여 도정에 반영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이나”며 집중 추궁했다.

김홍열 부위원장(청양)은 “경제통상실 소관 위원회 회의구성과 운영 내역 중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중 지원 예산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한데 지원한 근거가 무엇이며, 민간분야 국제교류 지원에서 그동안 성과는 있었는지”와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에서 그동안 수출지원을 위해 지원대비 수출실정은 어느 정도인지” 추궁했다.

조이환 의원(서천)은 “사회적기업 육성 업종을 살펴보면 특정분야에 많이 몰려 있는데 다양성이 저조하고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보완계획은 있는지와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서 도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도에서 너무 의지가 적은 것이 아니냐”며 질타하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집중 추궁하였다.



▲ 11.13 농산물원종장 행정사무감사



천안서북소방서, 홍성소방서, 당진소방서, 충청소방학교 등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문화 위원장(논산)은 11월 22일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충남의 화재발생현황 및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점검, 소방차 노후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 단체 및 모임 등을 이용하여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대원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추후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병기 의원(부여)는 “작년 9월 소방서 개청 이래 천안 서북지역 화재건수가 5.9% 증가하였는데 소방서가 신설됐음에도 화재건이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절기전 반드시 점검을 실시할 것과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

김문권 의원(천안)은 동절기 전력대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한전과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시 즉각 대응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광열 의원(아산)은 서북소방대원의 비상상황시 출동까지의 소요시간 점검을 위해 불시에 “차고탈출 비상출동훈련” 지령을 내리고 상황신고 후 차량출발시까지의 출동상황을 확인하였다.

유병국 의원(천안)은 11월 12일 홍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15대의 노후 불량 장비를 교체해주고 예산을 증액, 소방인력을 확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11건, 2009년 214건, 2010년 214건, 2011년 251건으로 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홍성소방서의 화재 예방대책 및 소방안전교육이 미흡한건 아닌지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연례반복적인 소방안전대책 수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재진수를 줄일 수 있는
홍성·예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예산)은 11월 21일 충청남도 건설교통항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가야산 사적지 정비 사업이 왜 불가사업으로 포함되었는지” 따져 묻고,
“충청남도 항만 관리조직이 신설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 등 항만분야발전을 위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권처원 부위원장(천안)은 11월 22일 충남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화재의 초기진압과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 전담
의용소방대가 전국 제일로 평가받는 만큼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게 하려면 먼저 대원들에게
선진화 교육을 하여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유기복 의원(홍성)은 “화재에 대한 진압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만큼 화재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급대원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 11.14 천안서북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은철 위원장(교육)은 11월 15일 감사1반은 외산중학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부여·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감사2반은 팔봉중을 현지 확인한 후 서산·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충남도내 14개 지역 중 유일하게 서천과 태안에는 단설유치원이 없어 향후 서천교육지원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고, 서천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 교원 중 서천이 아닌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교원이 많으며 학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조남권 부위원장(교육)은 충남학생임해수련원에서 학생수련활동으로 해상레저, 해상구조, 해상래프팅, 바다수영 등 많은 해양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지도상의 문제점과 필요한 장비 등 향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지철 의원(교육)은 충남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학생 영어 몰입 합숙형 캠프 운영'에 대하여 1기에서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을 질의했고, 충무교육원에서 고등학생 충무리더십 과정 선발시 명문고 학생들을 더 많이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서형달 의원(서천)은 도시와 농촌과의 외국어 교육격차가 커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남외국어교육원에서 역점·특점과제로 내놓은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nglish Education Care Program」 운영사업 효과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충남과학교육원의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이 63%로 집행비율이 낮은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임춘근 의원(교육)은 학생들의 각종 체험학습과 교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무교육원, 충남학생수련원, 충남임해수련원이 연간 50%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며, 84명의 인건비와 연간 24억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이들 직속기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새)은 충남예술고가 도내 중학교와 연계하여 예술 영재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현재 충남예술고가 충남북부에 치우쳐 위치해 있는데 전국 학생들과 우수한 강사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진환 의원(천안6, 신)은 서천교육지원청 관내 송림초등학교 유부도분교장의 학생이 1명으로 유부도분교장의 현황과 향후 학생 교육대책에 대하여 질의했다.



▲ 11.12 ~ 11. 23 충남교육연구 정보원 및 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 행정사무 감사



▲ 충남도의회, 천안 의용소방대와 함께 연탄나눔기 봉사(11. 15)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와 천안동남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호명, 여성회장 가재은)가 함께 겨울철 대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11월 15일 천안시 봉명동 일원에서 펼쳤다.



▲ 충남도의회,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9일,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삼성중공업 등에 건의했다.
명성철「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보상 및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삼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희망 2013 나눔캠페인 참여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12. 3일 접견실에서 '희망 2013 나눔캠페인' 참여 일환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신한철 회장으로부터 이웃사랑 실천을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았다.



▲ 백제고도보존및주민지원 활성화 토론회 개최

충청남도의회「백제고도보존 및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유병돈 대표(부여)는 12월 5일 부여군 소재 부여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 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 ▲ 충남도의원, 이웃과 함께 겨울나기에 앞장서

충남도의회 천안 출신 권처원 의원과 김문권 의원은 12. 4일 천안서북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

권처원 의원과 김문권 의원은 이번 겨울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동참 물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제20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 참석

12.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준우 의장, 수상자, 농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Y-SMU 충남포럼 창립 및 2012 충남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12. 21일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새마을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Y-SMU 충남포럼 창립 및 2012 충남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하였다.



▲ 충청남도의회, 지역농산물 활용방안 워크숍 개최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이환 의원)은 12. 22일 충남발전 연구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농산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지역 로컬푸드 연구회와 공동으로 임춘근·조길행·박문화·이도규·김지철 의원과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박사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Photo by CHUNGNAM PROVINCIAL COUNCIL



▲「2012 풀뿌리자치대상 충청인상」수상

충남도의회 이준우 의장과 김용필 의원이 21일 저녁 세종특별시 조치원을 수정웨딩홀에서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가 주관하는「2012 풀뿌리자치대상 충청인상」을 수상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 의원(천안)은 11. 23일 천안시 NGO센터에서 재래시장 상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200만 도민과 '내포시대 충남발전' 기원

충남도청 각 실·국별 이사가 막바지로, 26일 도지사실 이사에 맞춰 도청 신청사와 홍성·예산 일원에서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의회 김기영 부의장·고남종·김용필·유기복 이종화 의원, 도민 등 1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사 환영이벤트가 열렸다.

도정질문과 답변

Questions and Answers



2012. 11. 26(월)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맹정호 의원(서산)

충남도의 기업입지보조금 문제 집중 추궁

Q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충남도 유치에 위해 지난 5년간 기업입지보조금 1천838억원을 지출하였으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고용계획(1만2천500명) 대비 36%인 4천600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업 이전 이후 새롭게 고용한 지역인재(충남지역)는 1천400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1%에 지나지 않으며, 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타 지역 인재의 경우 930명으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조금은 도에서 주는데 왜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것인지? 충남도의 기업입지금 관리방안은 무엇이고, 기업유치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 위주 기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A 경제통장실장 남궁영 | 투자완료된 21개 기업에 대한 고용현황은 실제 고용인원이 2,123명으로 고용계획 대비 10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지역민 고용도 647명으로 신규고용 인원 대비 많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하여 시군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투자이행 계획을 점검하여 지연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조치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방향을 지역민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량기업 선별유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병돈 의원(부여)

장애인 복지정책 소홀

Q 충남의 장애인 수는 1만 2500여명이고 후천적 원인이 80%를 차지하는데 관련 예산은 855억원으로 충남도 예산의 2.2%에 불과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이 소홀 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가족간 갈등, 상실감·충격·슬픔 등 부정적 정서의 경험,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유형별 특성에 맞는 대응적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부재하다.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촉구함.

A 안희정 도지사 | 장애인 차별금지 활동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의 지원 현황 그리고 정보화 교육 지원, 직업교육 및 구인·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장애인 우수고용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장애인 경제활동의 강화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한 정신과 육체적 장애를 탈피하기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그리고 끝으로 직업교육에 대해서 강조점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재정적 큰 규모의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도가 도정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의 활동계획을 더 좀 잡아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음.



김석곤 의원(금산)

중학생들을 위해 금산중·고등학교 분리 필요

Q 금산중·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1분인 통합학교로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 대한 학교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금산중학교와 금산고등학교로 분리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급식을 위하여 좁은 중학교 건물에 위치한 주방과 식당을 사용하고 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치어 학교운동장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중학생들이 운동을 즐기고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없어 이것이 학생폭력 그리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분리하기 어려우면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금산중학교에 운동장을 확보해 주기 바람.

A **김종성 교육감** | 지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쪽으로 가는 마당에 분리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 보겠음. 현재 운동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동장을 중학생들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음.



조이환 의원(서천)

안정적인 김 생산대책과 식물공장 사업추진 의향은?

Q 현재 부산지역에서 김 양식과정에 시행되고 있는 육상채묘 및 냉동망을 활용한 김양식 현대화사업을 도입하여 김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갯벌예방, 무기산 사용 억제, 이모작으로 어기연장, 밀식예방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함은 물론 태풍 등으로 인한 김양식장 파손시 언제든지 종망교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물김생산을 현실화할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집중호우, 초대형태풍, 가뭄 등의 기상 이변으로 농업생산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나 하우스재배만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충남도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식물공장사업에 매진해야 함.

A **안희정 도지사** | 김양식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본 김양식 어민들께 또 해당 가구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피해복구가 되고 피해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김양식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할 시설들이 육묘채묘장과 냉동시설들이 유지 되어야 되는지 좀 더 논의하고 우리도에서 김, 굴, 바지락, 해삼 등 수산업 3농 혁신에 주요 수산 산업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육성해 나갈 계획임. 식물공장, 식물농장 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대중적인 새로운 21세기 신농업 혁명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생산 공정에 대한 규격화 등을 우선 연구하는데 우리 충남도가 모범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음.



김종문 의원(천안)

원어민 영어교육 이대로 좋은가?

Q 충남도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실태는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영어 전담 교사, 농·어촌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는데 총 인원 1,218명에 달한다. 그중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전체 초등학교 430개에 322명, 193개의 중학교에 128명, 118개의 고등학교에 86명을 두어 총 747개의 학교에 549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 300억 이상이나 되는 것은 우리도가 영어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자격과 선발기준을 강화해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배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산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의문이므로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처럼 충남도 교육청도 삭감할 의지가 있는가.

A **김종성 교육감** | 우리 교육청에는 549명 현재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49명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원어민은 414명 76%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격증 미소지자에게는 금년말로 다 정리하겠음. 원어민 뽑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겠음. 영어교사는 영어회화만 전문강사를 학교에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어민을 줄이고 원어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음.



이종화 의원(홍성)

홍보지구 수질 개선책

Q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은 홍성·보령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91년 착수한 국책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사업비 3929억원을 들여 90% 진척됐지만 아직 가동하지 못하여 금년 봄 심한 가뭄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 원인은 담수호 상류에 축산단지가 급증한 반면 축산분뇨를 처리할 환경기초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충남도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수질 대책을 추진하고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줄여야 한다.

A **안희정 도지사** | 홍보지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물을 가두어서 쓰고 있지 못하고 있음. 가축분뇨 문제는 축산인들과 계속해서 논의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 내부적으로 축산인들, 그리고 농업인들, 그리고 시·군 지자체들도 자연마을 단위의 하수처리, 생활오염원들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보강, 이런 작업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음.

2012. 11. 27(화)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정숙 의원(비례)

노인문제 총체적 대응

Q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교육·주택·고용·세제(稅制) 등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황혼 이혼을 한 노인여성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분할 연금제도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까지 확대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국고와 지방비 부담률이 50:50으로 되어 있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은 노인복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초노령연금처럼 차등 지원해야 한다.

A **안희정 도지사** | 노인복지나 일반복지 예산들이 제가 도정을 맡고 나서부터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도정을 맡고 보니 지방재정에서 실제로 이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운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참 너무 힘들었음. 그래서 우선은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노인복지정책의 몇 가지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충남이 제안을 해서 의원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음. 특히 정년연장을 대비하는 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를, 국비지원 비율을 노인의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근거해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재논의 해 보라고 했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또한 가능하면 마을의 공동사업과 공동조직들을 강화해 나가고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음.



김지철 의원(교육)

보육예산 전출은 줄속

Q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올해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로 전출토록 하는 교육과학부 지침의 본질은,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5세 까지 줄속 확대하여 생색은 다 내고 정작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꿈수이다. 이로 인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충남 교육재정이 악화되어 인건비와 교수학습 등의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유·초·중·고교 학교급식의 질, 학교시설의 확충과 개·보수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A **김종성 교육감** | 교육과학부 지침의 본질은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해서 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현재 2원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시켜 일원화 함으로써 학비를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데 학교의 자체예산으로는 학교시설, 환경 개선 여러 가지 예산이 축소되어 학교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음.



김득응 의원(천안)

천안-청주공항 노선

Q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2014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관련, 충남도는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에 대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검증요역을 추진해야 한다. 또 충남도와 충북도가 수도권전철연장을 주장했지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수도권전철이 운행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발표한 국정과 제 반영 현안사업 중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A **안희정 도지사** | 지역에서 직선 노선을 기대했었던 많은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노선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타를 통해서 결론을 내 주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도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독립기념관과 병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 연장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대선주자들에게 이 사업의 연장을 공약화 해 줄 것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추후라도 병천까지 이어지는 전철 연장 사업들이 우리 충청권 전체의 북부와 중앙지역의 철도망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Minutes speech

5분 발언

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2012. 11. 9



김장옥 의원(비례)

| 충남 관광홍보 동영상 차별화 없다! |

서울역 등 수도권에 설치된 충남 관광홍보 영상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고 참신성과 집중도가 낮아 보인다. 충남 홍보물만이 유행이 지난 영상물로 느껴지는데 영상효과와 느낌이 반영되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고 최근 영상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이미지개선을 하려면 산뜻하고 감각적이어야 하며 짧은 시간에 인식할 수 있도록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짧은 영상물으로써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 광고의 홍수시대에 충청남도도 더욱 홍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인지도를 높이고 내용이 분명히 전달? 각인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맹정호 의원(서산)

| 태안 앞바다에서 뺑소니 친 삼성은 사과하라! |

5년 전 1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겨울 바다에서 검은 눈물을 닦았고 주민들은 피해보상과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네 명의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작 기름유출 사고 책임자는 빠지고 피해자만 남아 재판을 받는 기이한 대한민국이다. 유류사고 원인은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이 유조선에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가해 차량은 빠지고 피해 차량에서 새어나온 기름만을 탓하고 있는 분명한 뺑소니 사건과 같은 이치로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사고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1995년 여수 씨프린스 기름유출 사고 당시 사고 책임자인 GS칼텍스는 기름유출량이 태안보다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지역발전기금 1000억원을 출연했다. 이에 삼성도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반드시 삼성그룹의 이견희 회장을 국회 유류특위에 출석시켜 공개적인 사과를 이끌어 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5분 발언



조이환 의원(서천)

| 금강 물고기 폐사 원인 규명대책 촉구 |

지난 달 17일부터 13일간에 걸쳐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사고가 발생한 것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환경부와 충남도의 늦장 대응으로 상류 백제보에서 논산의 황산대교, 익산의 웅포대교에 이르는 65km 구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준설로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산소가 부족해져 금강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오염된 금강물의 최종 집결지인 금강하구의 담수에 대해 환경부에서 원인을 규명해 주어야하며, 금강하구의 물이 유통되도록 서천군 쪽에 배수갑문 설치에 대해 충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한다.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012. 12. 14

5
Minutes
speech



고남종 의원(예산)

| 충남도는 내포시 주변 공동화대책을 마련하라! |

예산군과 홍성군 지역에는 도청입주를 환영하는 지역사회의 환영 현수막이 설치된 가운데 주민들의 기대에 부풀어 있고, 도청이전과 함께 집기와 비품 등이 속속 옮겨지고 있는데 정작 이사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지사는 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여 공무원 사회를 혼란속에 몰아 넣고 지역민심을 분노하게 하는가? 내포시 주변 지역공동화 대책으로 첫째, 상생차원에서 예산·홍성 양 군 지역에 공무원들의 우선 이주, 둘째, 원도심 공실을 관련 현실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상응한 예산조치, 셋째, 공무원 출퇴근버스 운행의 6개월 제한, 넷째, 산하 기관의 적극적인 이전추진을 촉구한다.

Minutes speech



이기철 의원(아산)

| 출산장려를 위한 시·군 보건소 분만실 설치 제안 |

2011년 충남은 총15,428명의 분만실적을 기록했으나 15개 시·군 중 태안, 청양, 부여, 계룡 등 4개 시·군은 분만 실적이 전무했으며 분만실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임신을 원하겠는가? 전국의 분만병원이 없는 시·군이 48곳이나 되며, 신생아 10만 명 당 산모 사망률이 강원도는 34.6명, 충북 27.6명, 경북 20.6명, 충남 19.9명으로 충남 산모 사망률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으며 산모 사망률 전국평균은 14명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가임 여성들에게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보건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및 거점별로 소재한 도립 의료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임신 및 출산을 장려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 또한 민간 의료가 기피하는 분만 부분은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군 보건소에 분만실을 설치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고정 배치하여 가임여성들이 안심하고 임신 및 출산을 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



임춘근 의원(교육)

| 내포신도시 신설학교 스마트 첨단기자재 예산 확보 촉구 |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세종시가 6개월 만에 이주민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마냥 부럽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내포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상으로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생 유입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학교는 2013년부터 2016년 이후까지 단설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3개교가 계획되어 있다. 내포신도시 신설학교에 대하여 세종시의 스마트학교에 버금가는 스마트 첨단 기자재도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제258회 정례회 안건 주요처리 안건

의안 30건

조례안 17, 예산안 5, 동의안 6, 결의안 2, 기간 : 2012. 11. 9 ? 12. 14(36일간)

☞ 의원발의 촉구 결의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결의안』

제안자 - 명성철 의원

처리결과 - 채택

주요내용 |

- 피해주민이 누락되지 않고,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침 마련과 '허베이스피리트로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서해안 유류사고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제안자 - 명성철 의원

처리결과 - 채택

주요내용 |

- 삼성은 서해안유류사고에 대하여 피해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주민들의 요구인 지역발전기금 증액을 즉각 이행하는 등 유류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촉구

☞ 의원발의 제정 조례 · 동의안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안자 - 조이환 · 이종현 · 김홍열 · 고남종 · 김득응 · 송덕빈 · 이종화 · 조길행 의원

처리결과 - 수정가결

주요내용 |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과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도지사는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사업,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주민의 연구모임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시군 및 도의 역할 인력지원 및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정책 및 사업을 협의 할 추진단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13조)
- 사업의 발굴, 사업의 유형 설정 및 지원을 정함(안 제14조, 제15조) 등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제안자 - 이종화 · 이종현 · 김홍열 · 고남종 · 김득응 · 송덕빈 · 조길행 · 조이환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 지역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도내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의 내용 및 경비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
-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회의소집, 수당 등에 관한 사항
- 국내기업 이전 · 대규모 투자기업 · 신규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
- 기업의 사후관리, 지원취소, 환수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안 자 - 유병국 의원

처리결과 - 채택

주요내용 |

- 「지방자치법」제56조, 제57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심사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자 - 유병국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 경우의 집회일 변경(안 제4조 제3항)
- 정례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때에는” 을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때에는” 으로 정함.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안 자 - 윤석우 의원

처리결과 - 채택

주요내용 |

-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자 - 유병국 의원

처리결과 - 원안가결

주요내용 |

- 의원의 원격지 회의 출석경비 지급 대상지역을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변경 적용 (안 제4조제5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 안 자 - 유기복 의원

처리결과 - 채택

주요내용 |

- 도청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정상추진에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한 지원을위하여, 지난 2010년 10월 18일「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있으나,
-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건설과 도청이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내실 있는 지원활동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안 자 - 김석곤 · 장기승 · 김기영 · 윤석우 · 조치연 · 김장옥 · 박영송 · 유병국 · 윤미숙 의원

처리결과 - 수정가결

주요내용 |

- 의료원의 소재지 주소 개정(안 제2조)
- 「도로명주소법」시행('11.7.29)과 천안의료원 이전에 따라 의료원 소재지 주소를 법정주소로 개정함.
- 의료원의 이사중 당연직 이사 추가(안 제3조)
- 해당 의료원의 진료부장과 관리부장을 이사로 임명함.
-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 추가(안 제4조)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추가함.
- 도지사의 지도 · 감독 조항 신설(안 제11조)
- 의료원 지도 · 감독 및 인사, 보수 등 주요사항에 대해 도지사 승인 조항을 신설함.
- 시행규칙 제정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정 근거규정을 신설함.

그 밖의 처리 안건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제3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남도립청양대학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천방법 개정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수정가결
- 201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2013년도 의회운영 계획

○ 연간회의 총일수 : 120일(정례회52, 임시회68)

◇ '13년도 운영계획 : 114일(정례회2회 52일, 임시회6회 62일) ※예비일수 : 6일

회차별	시기 · 기간	주요안건	비고
제259회 임시회	1. 28(월) ~ 2. 6(수) (10일간) ※ 본회의2, 상임위6, 공휴일2	○ 2013년 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포함)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신청(1.1) • 설연휴(2.9~2.11)
제260회 임시회	3. 4(월) ~ 3. 14(목) (11일간) ※ 본회의4, 상임위5, 공휴일2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3.1절(3. 1)
제261회 임시회	4. 9(화) ~ 4. 18(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위6, 공휴일2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제262회 임시회	5. 14(화) ~ 5. 23(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위5, 공휴일3	○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어린이 날(5. 5) • 석가탄신일(5.17)
결산검사 (5. 24 ~ 6. 12) : 20일 예정			
제263회 정례회	6. 24(월) ~ 7. 9(화) (16일간) ※ 본회의4, 상임위8, 공휴일4	○ 도정·교육행정 질문 ○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현충일(6. 6)
제264회 임시회	8. 27(화) ~ 9. 5(목) (10일간) ※ 본회의2, 상임위6, 공휴일2	○ 2013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 2013 행정사무감사계획 기간결정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광복절(8.15) • 을지연습 - 8.19~8.22 (예정) • 추석연휴(9.18~20)
제265회 임시회	10. 7(월) ~ 10. 17(목) (11일간) ※ 본회의4, 상임위5, 공휴일2	○ 도정 · 교육행정 질문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개천절(10. 3) • 한글날(10. 9)
제266회 정례회	11. 18(월) ~ 12. 23(월) (36일간) ※ 본회의5, 상임위17, 예결위4 공휴일10	○ 2013 행정사무감사 ○ 2014 본예산, 2013추가경정 예산안 ○ 도정 · 교육행정질문 ○ 조례 제 · 개정안 등 처리	• 성탄절(12.25)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36일간 일정 마무리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14일 제258회 정례회 마지막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대전시대를 최종 마감했다.

☞ **도의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36일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해 도와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예산의 정리추경과 2013년도 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 **행정자치위 명성철 의원(보령)**은 2001~2012년까지 폐광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소득사업과 기금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을 집중 추궁하고 폐광기금 사용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촉구했다.

☞ **문화복지위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천안의료원 간호사 수술거부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 전해 가는 심각성을 질타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농수산경제위 조길행 의원(공주)**은 수도권 이전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입지보조금을 받은 73개 기업중 가동 중인 기업은 37개에 불과하고 이전한 뒤에 부도 처리된 4개 기업의 92억원에 대한 채권 미확보 사태를 질타하고 기업입지보조금의 투자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 **건설소방위 유병국 의원(천안)**은 건설교통항만국 소관 위원회가 19개 중 부실 운영 위원회가 43%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위원회 정리와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 **교육위원회 임춘근 의원(교육)** 천안제일고 인조잔디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무자격감리사로 인한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 및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조길행)**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집중심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청 예산 69억 9,680만원과 도교육청 44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4조 5,867억원과 2조 5,100억원에 이르는 충청 남도와 도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을 최종 통과 시켰다.

또한 서해안유류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서울 삼성 본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 **조이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지원 조례」와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등 15건의 조례안도 처리됐다.

☞ **이준우 의장**은 ‘충남도의회가 14일 회기를 끝으로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 내포시 신청사에서 도민들과 더 가까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포시에서 충남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 나가자’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이주민 기자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조림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신들의 고향'이라는 발리를 비롯해 1만 8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를 찾는다는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약 8시간을 비행기로 날아 도착한 자카르타의 첫 느낌은 습하고 더웠다.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쉽게 이렇게 정리된다. 세계 4위의 인구,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면적과 아시아 최대의 열대 산림자원을 보유한 국가. 3만여명의 우리 교민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회의 땅. 이 모든 게 인도네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수도인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은 사상을 초월한다. 애초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 아니었지만, 가뜰이나 좁은 도로에 관광객과 출퇴근 차량이 겹치다 보니 체증이 십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과 비교하면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이에서 산림 분야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돈독하다. 이미 칼리만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조림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조림 사업은 미흡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서부 누사틍가라 주 롬복 섬을 찾았다.

이곳은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범 조림 사업을 펴고 있는 곳이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열대의 토종 나무가 뿔뿔이 들어찬 숲이었다고 한다. 누사틍가라 주 정부 관계자는 "80년대 후반부터 이곳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산불 등으로 숲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 땅은 국유림이지만, 대대로 이곳에 살아온 주민은 살 집을 짓기 위해, 그리고 먹을 것을 경작하기 위해 벌채를 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곳의 상태는 완전 황폐지는 아니지만, 숲은 거의 파괴된 상태였다. 불법 벌채와 화전 개발, 산불 등으로 황폐해진 인도네시

INDONESIA UDARA INTERNASIONAL

BOOK

<http://council.chungnam.go.kr>

아의 산림은 이미 2006년 5900만ha(한국 전체 산림 면적의 9배)에 이르렀다. 해마다 300만ha가 황폐해지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일찌감치 벌거벗은 산림 지역에 나무를 심고 싶었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첫 조림행사를 하고, 계속해서 300ha에 달하는 나무를 심고 있다. 롬복 섬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산림협력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조림을 완료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사업을 등록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첫 탄소배출권 조림 사례가 될 것이란 기대도 함께 있다. 롬복 섬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선 꼬박 4일이 걸렸다. 산림에 대한 취재를 잠시 접어 두고 자카르타로 이동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만큼 한국 기업과 정부 기관이 대다수 밀집돼 있다. 대부분 이민자는 자카르타에서 10여년 이상을 거주했음에도 사실상 자카르타에서 내로라하는 장점을 소개하지 못했다. 자카르타 생활은 한국 생활환경과는 참으로 많이 다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변에 슈퍼가 있고, 버스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은 자카르타에서 쉽사리 꿈꿀 수 없다. 잠깐 어디를 가기 위해선 무조건 자동차가 필요하다. 단순히 쇼핑을 하기 위해선 차로 한 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이처럼 이동할 때는 언제나 차가 필요하기에 자카르타의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말한다. 이동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리면 가까운 거리라고. 물론 택시로도 이동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택시비도 저렴하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1~2시간 있는 것은 한국에 길든 사람에게 쉬운 일때 아니다. 그렇다고 걸어 다닐 수도 없다. 인도가 끓고 있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었다. 음식은 대부분 빈익빈 부익부로 나뉜다. 길옆에 나란히 서 있는 좌판에서 끼니를 해결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웬만한 구조가 갖춰진 식당으로 들어갈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우리나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값보다 더 비싸게 나오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럼에도 이민자들은 인도네시아를 '지상낙원'이라고 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금전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른바 '왕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와 함께 취재에 도움을 준 산림분야 인턴은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단순히 취재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찾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나라에 대한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많은 곳을 둘러보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기자가 생각한 인도네시아는 덥고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지만, 금전적 여유만 있다면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 요약됐다.

BOOK & MOVIE

김미경 지음 |



김미경의 드림 온

김미경 원장이 알려주는 꿈의 연금술, 드림 온!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을 말하고 꿈 언저리에서 얼쩡거리는 대한민국. 20대 때는 꿈이 없는 게 당연하고, 30대가 되어야 비로소 꿈 앞에서 방향하는 우리에게, 과연 꿈이란 무엇일까? 한때 자기계발서의 달콤한 구호에 속아 꿈에 설? 던 적도 있으나, 이제 단물 빠진 껌처럼 씹혀진 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tvN '스타특강쇼'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대한민국 국민강사, 김미경 원장의 새 책 『김미경의 드림 온』이 그 모든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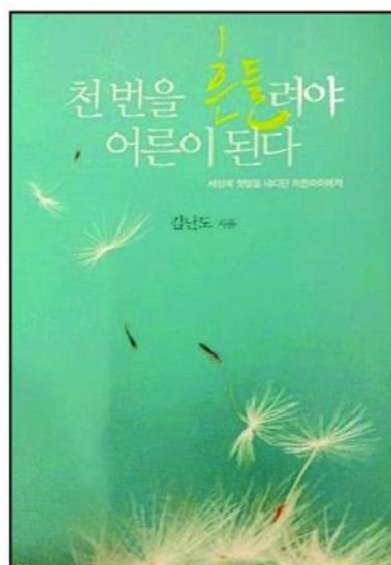
이 책에서 김미경 원장은 “꿈은 성공이 아니라 성찰의 언어이고, 성취가 아니라 성장의 언어다.”라고 선언한다. 꿈은 방향성이고, 테크닉이며, 기술이고, 공식이어서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당장 4가지 드림리소스로 꿈을 만들고, 7가지 법칙으로 꿈의 스위치를 켜라는 것이다.

김난도 지음 |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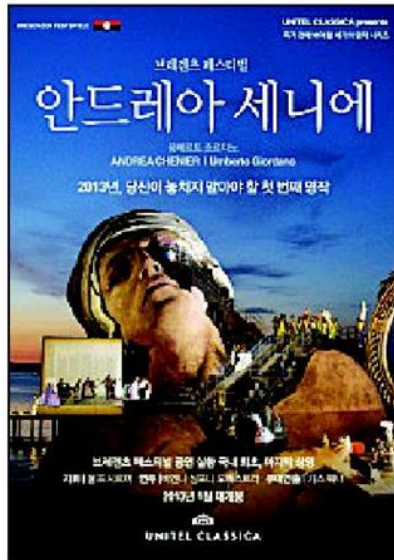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열광한 경청과 공감의 멘토, 란도샘이 돌아왔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가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청춘의 불안을 지나 세상 속에서 뜨거운 별을 맨몸으로 건디며 흔들리고 있는 어른아이들을 위해 들려주는 저자의 가슴 벅찬 인생 멘토링을 담은 책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련과 상처투성이인 어른의 삶을 막 살아가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힘겨워하는 문제와 딜레마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함께 고민한다. 또 사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취업 재수, 삼수생까지 청춘을 허비하는 아픔에 고통 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다. 어른의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많이 아파하지도 말라는 깨달음을 전하며, 삶이 나를 거칠게 흔들 땐 꽃꽂이 버티다가 나가떨어지거나 부러지기보단, 함께 흔들리며 한 뼘씩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2013.01.19 개봉 |



안드레아세니에

개요 : 오스트리아 132분 2013.01.19 개봉

감독 : 키스 워너

출연 : 헥터 샌도발(안드레아 세니에), 스캇 헨드릭스(카를로 제라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귀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찬 제라르와 귀족 신분에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만 마달레나, 그리고 혁명의 중심에서 쫓기는 신세로 전락한 시인 세니에, 세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운명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점점 극단으로 치달고 마는데...

2013.01.24 개봉 |

나비와 바다

개요 : 다큐멘터리한국89분 2013.01.24 개봉

감독 : 박배일

출연 : 재년(제제), 우영(노인네)

"니랑 내랑 같이 살자" 8년차 커플의 결혼 허들 넘기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재년(애칭 제제)과 우영(애칭 노인네), 떠돌이 나이차를 극복하고 만남을 시작한 지 어언 8년. 이젠, 그녀를 바라다 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벗어 던지고, 그를 배웅해야 하는 아쉬운 헤어짐을 끝내고 싶다! 그러나, 미처 몰랐다.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내가 다 책임질게. 오빠만 믿으라'는 우영의 프로포즈가 거듭될수록 제제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험한 세상에 덜컥 둘만 남겨진 기분. '남편과 아내'로 규정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고, 주변의 우려 섞인 시선은 공포로 다가왔다. 과연, 제제와 우영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역축제

대둔산 논산수락계곡 얼음축제



- 때 곳 : 2013. 1. 5 ~ 2. 3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
- 내 용 : 눈썰매, 얼음썰매,
얼음봅슬레이, 먹거리체험 등

제10회 홍성 남당항 새조개축제



- 때 곳 : 2013. 1. 5 ~ 3. 31
홍성군 남당항 일원
- 내 용 : 새조개잡기체험, 송어잡기체험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 때 곳 : 2012. 12. 22 ~ 2013.02.11
청양군 천장호출렁다리 일원
- 내 용 : 썰매와 얼음썰매, 맨손빙어잡기 체험
눈조각, 얼음조각, 얼음분수 등 50점

충남도민을 위해 스마트해진
충남도의회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시청하세요.



충청남도의회 인터넷방송

CHUNGCHEONGNAM-DO COUNCIL

영상뉴스 제256회 임시회 농수산경제위원...



생방송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영상뉴스



공지사항



도움말



홍보영상

CHUNGCHEONGNAM-DO COUNCIL

Internet Broadcasting



PC버전
전체메뉴
페이지위로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CHUNGCHEONGNAM-DO COUNCIL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충남도의회 트위터 [충남도의회@cncouncil](https://twitter.com/cncouncil)

「충남의회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충남도의회 기획홍보담당(☎042-635-5102)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